

KORDI ISSUE PAPER



2020-2

발행일 2020.12.24. / 발행인 강익구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농촌지역 노인 특성과 지역환경 분석 : 농촌과 도시지역 비교를 중심으로¹⁾

배 재 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
(baejaeyoon@kordi.or.kr)

요약

- 본고에서는 농촌지역 노인의 특성과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환경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농촌지역 노인은 후기노인의 비율이 높고 농림어업활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농촌지역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전자기기 이용능력이 낮은 편임.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인프라가 불충분함. 또한, 농촌지역은 노인복지시설과 병원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제한됨.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고연령, 남성, 노인부부가구, 저학력 비율이 높았고, 사업을 위한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본고는 농촌지역 노인과 지역환경 특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향후 농촌지역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음.

1. 일반적 특성

- ▷ 농촌지역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보다 후기노인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음. 75세 이상 후기노인 비율이 농촌지역 46.8%로 도시지역 40.9%보다 높고, 무학 비율이 농촌지역 31.6%로 도시지역 20.9%보다 높음.

1) 본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0년 중점연구과제인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개발 연구』(배재윤 외, 2020)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표 1〉 지역별 노인의 일반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친구·이웃·지인 왕래 빈도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65-69세	30.7	33.1	무학(글자모름)	10.2	4.9	거의 매일	64.5	40.8
70-74세	22.5	25.9	무학(글자해독)	21.4	16.0	일주일 2,3회	14.0	19.1
75-79세	23.1	20.2	초등학교	39.1	31.9	일주일 1회	7.7	14.7
80-84세	14.4	12.6	중학교	13.4	18.4	한달 1회 이하	11.4	20.4
85세 이상	9.3	8.1	고등학교 이상	15.9	28.8	왕래없음	2.4	5.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가구규모			단독거주기간			단독가구 생활상 어려움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평균	2.0	2.1	5년 미만	14.1	17.3	아플 때 간호	39.8	31.3
최소	1	1	5년-10년 미만	15.6	21.1	일상생활 문제처리	15.4	12.5
최대	8	10	10년-15년 미만	16.1	21.0	경제 불안	24.4	34.5
			15년-20년 미만	20.2	16.9	안전 불안	2.6	2.7
			20년 이상	33.9	23.8	불안·외로움	17.8	19.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2. 경제활동

- ▷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과 비교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는데, 그 일의 특성은 농림어업에서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임. 농촌 노인의 45.9%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도시 노인은 농촌 노인의 절반 수준인 24.1%만이 일하고 있음.

〈표 2〉 지역별 노인의 일자리 경험

(단위:%)

구분	현재 일하고 있음	일한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평생 일을 하지 않음	계
농촌	45.9	48.5	5.6	100.0
도시	24.1	64.1	11.8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표 3〉 지역별 노인의 현재 일자리 특성

(단위:%)

종사 직종			일의 내용			종사상지위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0.5	9.0	농림어업	63.3	9.9	자영업자	50.1	27.5
단순노무종사자	24.7	53.5	경비, 수위, 청소	11.9	27.3	무급가족종사자	18.9	5.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6	9.9	운송, 건설 관련	9.4	20.3	상용근로자	2.8	8.1
판매종사자	3.2	7.6	가사, 조리 음식	7.1	16.3	임시근로자	20.1	44.7
서비스종사자	3.1	7.1	공공, 환경 관련	2.1	9.8	일용근로자	7.3	10.8
기타	3.9	12.9	기타	6.2	16.4	기타	0.8	3.4
계	100.0	100.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현재 일자리 종사기간			일을 하는 이유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없음	19.0	5.7	5년 미만	24.9	43.3	생계비 마련	75.8	70.6
1~29만원	31.3	33.6	5년~10년 미만	9.3	14.8	용돈 마련	8.6	14.0
30~99만원	23.9	20.6	10년~20년 미만	12.9	16.3	시간보내기	6.7	5.0
100~149만원	11.8	18.9	20년~30년 미만	7.1	8.6	건강유지	6.4	5.6
150만원 이상	14.0	21.2	30년 이상	45.8	16.9	기타	2.5	4.8
계	100.0	100.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3. 여가 및 사회활동

- ▷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여율은 지역별 차이(농촌 12.4%, 도시 13.1%)는 매우 미미하나 농촌지역의 프로그램 영역과 실시기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것을 알 수 있음.

〈표 4〉 지역별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단위:%)

프로그램 참여율			프로그램 영역			실시기관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참여	12.4	13.1	건강관리, 운동	50.0	38.5	노인복지관	28.3	37.7
			문화예술	28.7	37.6	경로당	40.1	10.3
			정보화	8.5	5.9	지자체	8.2	16.3
			어학	7.7	11.5	공공문화센터	10.3	10.5
			기타	5.1	6.5	시설문화센터·학원	3.9	9.3
			계	100.0	100.0	종교기관	3.9	6.5
						기타	2.3	2.5
						계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 ▷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확인됨. 농촌지역 노인은 경로당의 이용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이 노인복지관보다 높은 반면, 도시지역 노인은 노인복지관의 이용률과 향후 이용희망률이 경로당보다 높은 특성이 있음.

〈표 5〉 지역별 노인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단위:%, 일)

경로당			노인복지관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현재 이용률	48.5	11.5	현재 이용률	7.9	9.9
향후(계속) 이용희망률	60.9	25.8	향후(계속) 이용희망률	25.8	28.3
1주간 평균 이용일수	3.9	4	1주간 평균 이용일수	2.2	2.6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 ▷ PC, 모바일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이용능력을 살펴보면, 농촌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전자기기 이용능력이 낮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자받기와 보내기도 농촌노인은 52.6%, 27.3%만이 이용 가능하지만, 도시노인은 이 보다 조금 높은 64.8%, 41.6%가 이용 가능함. 그 외 사진동영상촬영(농촌 26.6%, 도시 37.6%), SNS이용(농촌 18.5%, 도시 29.4%), 정보검색(농촌 17.2%, 도시 25.8%) 등에서도 농촌노인 10명 중 2~3명 만 이용 가능한 상황임. 도시노인의 경우 10명 중 3~4명이 이용 가능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음.

〈표 6〉 지역별 노인의 전자기기 이용능력

(단위:%)

구분	농촌	도시
문자받기	52.6	64.8
문자보내기	27.3	41.6
정보검색	17.2	25.8
사진동영상촬영	26.6	37.6
음악듣기	13.1	19.9
게임	5.1	8.7
동영상보기	10.0	14.3
SNS이용	18.5	29.4
온라인쇼핑	3.3	5.0
기타	0.3	0.3
계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4. 생활환경

- ▶ 농촌 노인(74.9%)은 도시 노인(69.1%) 보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주거지의 생활편리성은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낮음.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노인 비율이 농촌 13.3%로 도시 8.3% 보다 높음. 주거환경만족도 측면에서도 농촌 노인의 만족 비율은 75.4%로 도시 노인 80.2%보다 조금 낮게 나타남.

〈표 7〉 지역별 노인의 주거

(단위:%)

거주형태			주거지의 생활편리성			주거환경 만족도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자가	74.9	69.1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13.3	8.3	매우 만족	10.8	11.0
전세	2.5	9.5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나, 노인배려설비 없음	82.0	84.9	만족	64.6	69.2
월세	10.1	13.3	노인 배려 설비를 갖춘	4.7	6.8	그저 그렇다	10.3	13.5
무상	12.4	8.1	계	100.0	100.0	만족하지 않음	13.3	6.0
계	100.0	100.0				전혀 만족 안함	1.0	0.3
						계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 ▶ 농촌지역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외출할 때 불편한 점을 살펴본 결과, '교통수단 부족'이라는 응답이 농촌 9.9%로 도시 1.3%보다 높음.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농촌 노인(21.0%)의 운전 비율이 도시 노인(17.7%) 보다 높은 편임. 이러한 농촌지역의 교통부족은 병원 이용의 불편함에서도 확인됨. 병원 미치료율은²⁾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지만(농촌 9.4%, 도시 8.3%), 미치료 이유는 지역별 차이를 보임.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불편(10.5%)', '증상이 가벼움(28.0%)', '시간이 없어서(7.8%)'라는 이유가 높은 반면, 도시지역은 '경제적 어려움(59.7%)'이라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2) 병원 미치료율은 지난1년 간 병원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비율을 의미함.

〈표 8〉 외출 시 불편사항

(단위:%)

구분	농촌	도시
없음	55.7	61.2
버스타고 내리기	15.5	11.2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14.1	22.0
교통수단 부족	9.9	1.3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상태	2.1	1.2
노인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	1.2	1.8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1.5	1.2
기타	0.0	0.1
계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표 9〉 병의원 미치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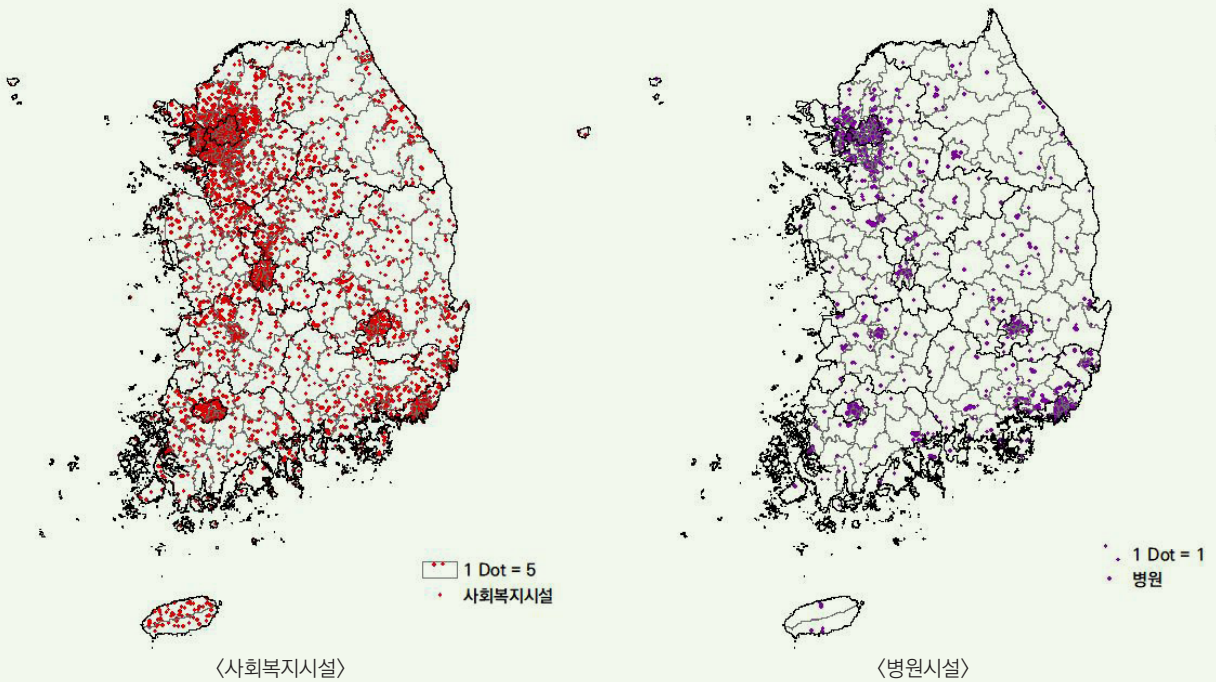
(단위:%)

구분	농촌	도시
경제적 어려움	31.8	59.7
교통불편	10.5	1.0
거동불편	10.8	12.2
의료정보부족	1.4	1.9
병원예약 진료대기 어려움	2.4	1.6
증상이 가벼움	28.0	12.3
치료과정 두려움	7.1	7.3
시간이 없어서	7.8	3.7
기타	0.3	0.3
계	100.0	10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구성

5. 전달체계 및 교통수단

- ▷ 농촌의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부족하다는 데 있음. [그림 1]과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농촌에 위치한 기관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위치하여 마을 단위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표 10〉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자치구·일반시에 평균 약 120개의 시설이 있으나 군지역에는 평균 약 40개소에 불과함.



주: 2019년 말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그림 1]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시설 분포 현황

<표 10> 주요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

단위: 개소, (%)

지역 구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저소득	기타	합계
자치구·일반시	4,881 (54.2)	2,776 (30.8)	2,061 (22.9)	267 (3.0)	115 (1.3)	688 (7.6)	10,788 (119.9)
도농복합시	3,547 (62.2)	1,851 (32.5)	1,340 (23.5)	121 (2.1)	77 (1.4)	309 (5.4)	7,245 (127.1)
군지역	1,610 (19.6)	804 (9.8)	566 (6.9)	40 (0.5)	78 (1.0)	146 (1.8)	3,244 (39.6)
합계	10,038 (43.8)	5,431 (23.7)	3,967 (17.3)	428 (1.9)	270 (1.2)	1,143 (5.0)	21,277 (92.9)

주: 2019년 말 기준. 괄호 안 수는 시군구 당 기관 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표 11> 읍·면별 노인 관련 복지시설 분포

단위: 개소, (%)

지역 구분	65세 이상 인구	노인 복지관	사회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읍부	77.6 (36.1)	67 (78.8)	47 (77.0)	79 (89.8)
면부	137.3 (63.9)	18 (21.2)	14 (23.0)	9 (10.2)
합계	214.9	85	61	88

주: 2018년 12월 기준. 괄호 안 수는 전체 읍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노인복지관은 2018년 말 기준이며 나머지 시설은 2019년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 12> 주요 병의원 분포 현황

단위: 개소, (%)

지역 구분	상급종합·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등	합계
자치구·일반시	4,881 (54.2)	2,776 (30.8)	2,061 (22.9)	267 (3.0)	115 (1.3)	688 (7.6)	10,788 (119.9)
도농복합시	3,547 (62.2)	1,851 (32.5)	1,340 (23.5)	121 (2.1)	77 (1.4)	309 (5.4)	7,245 (127.1)
군지역	1,610 (19.6)	804 (9.8)	566 (6.9)	40 (0.5)	78 (1.0)	146 (1.8)	3,244 (39.6)
합계	10,038 (43.8)	5,431 (23.7)	3,967 (17.3)	428 (1.9)	270 (1.2)	1,143 (5.0)	21,277 (92.9)

주: 2019년 말 기준. 괄호 안 수는 시군구 당 기관 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 농촌지역 노인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는 행정리 당 1일 평균 운행 횟수가 약 6회에 불과함. <표 13>에 따르면 노선버스가 하루 3회 이하로 운행하거나 아예 운행하지 않는 면이 전체의 20%로 높은 비율임. 면 지역에 대기하는 택시 수가 2대 이하인 면이 78.8%로 80%에 육박함. 이에 따라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읍이나 면 중심지에 위치한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음.

<표 13> 농촌지역 노선버스 운행 횟수

단위: 개, (%)

지역	행정리 수	미운행	운행횟수					
			1~3회	4~6회	7~9회	10~15회	15회 이상	
농촌 전체	36,792	2,349 (93.6)	34,443 (93.6)	4,390 (11.9)	9,208 (25.0)	3,907 (10.6)	5,595 (15.2)	11,343 (30.8)
읍부	8,598	517 (5.9)	8,181 (94.1)	603 (6.9)	1,573 (18.1)	596 (6.9)	1,034 (11.9)	4,375 (50.3)
면부	28,094	1,832 (6.5)	26,262 (93.5)	3,787 (13.5)	7,635 (27.2)	3,311 (11.8)	4,561 (16.2)	6,968 (24.8)

자료: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지역조사(3-2권).

<표 14> 면 지역 대기 택시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면에 주소지를 둔 택시수					합계
	0대	1대	2대	3대	4대 이상	
면의 수 (비율)	414 (35.1)	294 (24.9)	221 (18.7)	115 (9.8)	135 (11.5)	1,179

자료: 케이티스 전화번호부. 김응욱 외(2018)에서 재인용

6. 농촌지역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특성

-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농촌노인은 도시노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연령, 남성, 노인부부가구, 저학력의 특성이 있음.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은 75.4세로 도시지역 노인 74.9세 보다 조금 높은 편이며, 80세 이상 비율이 농촌지역 24.2%로 도시지역 19.0%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은 농촌지역에서 남성 비율이 42.2%(여성 57.8%)로 도시지역 39.6%(여성 60.4%)보다 조금 높음. 또한, 농촌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53.5%, 노인독거 34.5%, 가족동거 11.9%, 기타 0.1% 순이며, 도시지역은 노인부부 48.3%, 노인독거 30.4%, 가족동거 21.2%, 기타 0.1% 순이었음. 학력수준은 농촌지역 초졸 이하 45.3%, 중졸이상 54.7%인 반면, 도시지역 각각 35.0%, 65.0%로 확인됨.

〈표 15〉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반특성

(단위:%, 명)

연령			가구형태			학력수준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구분	농촌	도시
60-64세	1.8	2.0	가족동거(경제력무)	2.4	5.5	무학	6.9	3.8
65-69세	13.2	12.5	가족동거(경제력유)	9.6	15.7	초졸	38.4	31.2
70-74세	27.7	32.9	노인부부	53.5	48.3	중졸	27.2	26.9
75-79세	33.1	33.6	노인독거	34.5	30.4	고졸	20.7	29.7
80세 이상	24.2	19.0	기타	0.0	0.1	대졸 이상	6.8	8.4
계	100.0	100.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다른 이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촌지역 53.8%, 도시지역 54.5%로 나타나 모두 높은 편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어려움은 교통문제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교통문제는 농촌지역 22.0%, 도시지역 16.9%로 나타나 이동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6〉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유 및 어려움

(단위:%)

참여 이유	농촌	도시	참여 중 어려움	농촌	도시
생계비 마련	53.8	54.5	교통문제(이동문제)	22.0	16.9
용돈 마련	21.1	18.5	동료와의 관계	8.0	5.8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의 수단	5.6	6.4	수혜자(수요처)와의 관계	5.4	4.9
건강 유지의 수단	9.6	7.5	소속기관과의 관계	0.7	0.9
자아실현 및 자기발전 수단	2.1	2.7	기술력, 전문성(수행능력) 부족	3.2	2.0
여가시간 활용 수단	2.6	3.3	기타	6.6	6.0
일을 통한 즐거움	5.2	7.1	없음	54.1	63.5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7. 합의 및 시사점

-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른 특성이 있음. 이는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는 것임. 본고는 농촌지역 노인 특성과 지역환경을 통해 향후 농촌지역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합의가 있음. 또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9). 노인복지시설 현황.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지역조사(3-2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9).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내부자료.